

비상대책위 특보

제 154호

2012년 9월 12일 (수)

‘찍’ 소리만 내도 정직, 김재철의 심각한 징계 중독 <금요와이드>사태 관련 PD 3명 전원 정직

<금요와이드> 불방 사태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PD 3명 전원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프로그램 책임자인 이영백 PD는 정직 3개월, 인권침해 현장을 취재했던 김정민 PD는 정직 2개월, 회사 자유게시판에서 사측의 일방적 불방 결정을 비판한 민병선 PD는 정직 1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제작진과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구성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김재철의 ‘9·11 테러’라며 분노했다.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결정을 내리고 도발한 것은 파업 잠정 중단 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측의 잘못? 책임은 조합원에게’ 전형적인 김재철식 징계

무차별 해고와 대량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치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사측은 그제(1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인사위원회를 한 시간 늦게 시작하며 상당히 조심하는 듯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사측은 불방의 책임을 제작진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였다.

이에 <금요와이드> 최초기획자인 이영백 PD는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으며, 김시리 부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없었고, 해당 꼭지 취재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소상히 설명했다. 93사건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해 온 이영백 PD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파업 잠정 중단 이후,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역할을 공식화하는 프로듀서 자리까지 김시리 부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고사한 바 있다.

김재철의 징계 하청업자, 안광한과 경영진

실무자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말문이 막히자 이진숙, 권재홍 등 인사위원은 ‘지시 불이행’이라는 군대에서 비롯음을 살 명목만 도들이표처럼 읊어댔고, 안광한 인사위원장은 해당 꼭지를 불방 시킨 이유나 배경은 전혀 설명하지 못한 채 배석한 오영근 인사부장에게 ‘방송제작가이드라인’까지 낭독시키는 황당한 상황도 연출했다. 인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밝히자면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만든 것이지 ‘불방’과 ‘징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결국 ‘징계의 달인’ 안광한과 인사위원은 사측이 내린 일방적 ‘불방’에 대한 책임을 <금요와이드> 제작진에게 전가하고 그 결과물을 김재철에게 전상했다.

MBC 우물에 독 뿌리는 김재철과 부역자

MBC ‘자유게시판’에 ‘자유’가 없다는 것도 이번 징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금요와이드> 불방사건의 책임을 질 인물은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이라는 취지의 비판적 글을 올린 민병선 PD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게시 글이 경어체로 작성되고 품위 없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김재철이 회사를 위한 쓴 소리나 소통하는 언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민 PD는 추석연휴 특집극의 스테프로 촬영현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방송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드라마 조연출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김재철, 안광한, 장근수 등 경영진이 정녕 몰랐을까. 방송이 어찌되는 개떡이 없는, 회사의 미래가 어찌되는 상관없다는 돌연변이들이 미운 놈들 손바주겠다며 MBC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패밀리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

김재철이 자행해 온 징계와 보복 인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총건을 자처한 보직자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것이다. 대기발령자가 아니었음에도 뜬금 없이 교육 명령을 받은 4명의 조합원도 김재철의 입장에서는 수하를 건드린 복수의 대상이었다.

고현승, 김희용 기자는 심원택 시사제작 2부장의 폭언과 욕설에 항의하는 소속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도 교육명령을 받고 <2580>팀에서 퇴출되었다. 심원택 부장은 “이들과 같이 일하기 꺼려워서 인사조치 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교육명령을 받은 전영우 기자 역시 김현종 시사제작국장의 정적발표회 당시 사회자문제로 논쟁이 있어 미운털이 박혔다는 게 주변의 증언이다. 교양제작국의 임남희 PD에 대해서 김철진 국장은 담당부장인 전연식 <MBC스페셜> 부장이 업무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앙금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교육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담당 국 부장이 불편하다고 뒷선에 고자질하면, 알아서 손바주는 뒷골목 수준으로 MBC가 전락했다. 하루하루 연명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는 김재철 일당이 사라져야 MBC가 살 수 있음은 너무도 명확하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인배들이 의로움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모래알 같은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도할 날이 멀지 않았다.

김재철 측, 불법감청 은폐위해 서버 전송기록 삭제

조합, 엄중항의 즉각적인 서버 압수수색 촉구

김재철 측이 무차별 불법 감청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 6일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MBC 구성원들의 컴퓨터에 깔린 트로이컷(Trojancut) 프로그램과 사용자 컴퓨터의 내부 자료 전송 기록을 일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이 여러 차례 트로이컷 관련 회사 서버의 보전을 요구했는데 뻔뻔하게도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이다. 조합은 사측이 아무런 고지 없이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트로이컷 프로그램과 전송기록들을 삭제한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공문을 어제(11일) 회사에 접수시켰다.

수사 당국은 하루속히 서버 압수수색해야

동시에 김재철 측이 즉각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과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는지 즉각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조합은 김재철 측이 증거 인멸에 나선만큼 관계 당국이 하루속히 압수수색에 나서 김재철 일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입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 수사착수 18일 조합 측 고소인 조사

조합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 고소인 조사를 하겠다고 조합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합은 강제요사처장이 출석해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기로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영등포 경찰서는 고소인 출석 보충조사와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의 참고인 조사, MBC 자료수집 프로그램 운용 실무선의 피고소인 조사를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위법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로이컷, 문서 작성 완료 이전부터 서버 전송의혹

수정할 때마다 전송 무차별 감청 가능성

김재철이 직원들 몰래 설치한 무차별 불법 감청 프로그램이 이메일 등의 완성본이 아니라 작성 단계에서부터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회사 서버로 전송해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이 피해 사례 신고기간으로 설정한 이번 주에 접수된 제보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다음은 한 조합원이 동창회 일과 관련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사적인 글이 회사의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통해 회사 서버로 전송된 기록이다. 이 조합원이 몇 번씩 글을 고쳐 쓴 흔적이 보이는 데 그 때마다 모두 전송됐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000입니다.

충동창회 이사 선임 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경써주서 감사합니다만 이사 선임에 대해 거절하고자하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송하시기

졸업생 000입니다.

충동창회 이사 선임 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신경써주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사 선임에 대해 거절하고자하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000입니다.

충동창회 이사 선임 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신경써주서 감사합니다만

이번 그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드닷없이 4박 5일 중국 출장

9월말엔 대만출장 준비, 방문진 청문 회피의도 짚음

김재철이 난데없이 중국으로 4박 5일간의 출장을 떠났다. 어제 낮 중국 항주 행 비행기를 탄 김재철은 항주와 장사를 거쳐 상해에 들른 뒤 15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의 정확한 출장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장근수 드라마본부장과 글로벌사업본부 관계자가 동행한 것으로 미뤄 한류 사업 관련 출장이란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은 또 추석연휴 즈음인 9월말에 대만 행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조로 나눠 진행되는 글로벌사업본부 직원들의 해외 워크숍에 사장으로서 직접 참석해 격려하겠다는 명분이다. 김재철은 이 출장일정을 핑계로 27일로 예정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청문 일정 연기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의 청문 일정을 지연시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꼼수이다.

현안 있을 때마다 출국하는 고질병

김재철은 지난 6월 29일 국회 합의를 자신의 거취 문제가 공론화될 즈음에도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고 파업돌입 직전인 올 1월 하순 기자들의 제작거부 때도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 또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월 21일에도 몰래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골치 아프고 자신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는 복잡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며칠씩이나 국내를 비우는 무책임한 행태를 꾸준히 반복해왔다. 이번 중국 출장과 9월 말에 준비 중인 대만 출장 역시 자신에 대한 방문진의 평가 절하라는 급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조합은 김재철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MBC 사태 등 언론 현안에 대한 6월 국회 합의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태에 대해 언론연대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언론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KBS, 방문진,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에 몰아서 처리하자라는 내용의 국감 일정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일방 처리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 문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안은 그 의도가 뻔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정은 속전속결로 끝내 비난여론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언론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 KBS 이길영 이사장의 학력논란,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 등 따지고 물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감 일정을 평소보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하루 만에 몰아서 하자는 것은 ‘대충 하고 넘어가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새누리당은 나머지 국감 일정으로 ‘창덕궁 달빛 가랑이’, ‘자동차 경주대회 연속주행’ 등 국정현안과 관련 없는 외유성 행사들을 제안했다. 최소한의 염치도, 상식도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헌협상에서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도 계속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언론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고, 방문진과 KBS에서 부적격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용인했다. 공영방송을 계속 틀어쥐고 대선에 임하겠다는 셈으로 보인다.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몇몇 인사를 내세워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로는 언론장악을 그대로 계승하여 자신의 대권가도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

MBC가 해고한 것은, ‘여섯 명의 작가’만이 아니다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다른 방송사 작가들의 할매이 기고로 **오늘은 SBS구성파 합의의 부회장이 박윤미 작가의 기고를 산다**. 박윤미 작가는 SBS <생방송 세븐데이즈> <궁금한 이 야기> 등을 집필했으며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집필 중입니다. 이번 관계사 글의 일부만 소개합니다. 박윤미 작가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직 대중이 길 위에 있었을 때인지 혹은 지쳐 돌아간 후였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날부터 소위 ‘글쟁이’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입을 닫는 행위는 주머니 들려오기 시작했다. 말로만 들던, 역사 속에서나 보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도’라는 걸이 시대에 실제 현실에서 보고 듣게 되었다. 언론사에 몸담은 이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나 동어반복적인 긴 애근 생각하던다. 그 와중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일념 하나로 계속 펜대를 돌리는 ‘쾌활한’ 작가 집단이 있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지금 상식과는 도통 거리가 먼 일을 겪어내는 중이다. MBC <PD수첩>에서 쫓겨난 여섯 명 작가들이 이야기다.

MBC 측은 길들여지지 않으니 차라리 같이 치우겠다는 생각으로 PD수첩 작가 전원을 해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해고한 일을 하면서 참, 쉽게 생각하셨나 보다. 해고 사유를 따져 묻는 작가들에게 갈게 설명하는 것도 귀찮았는지 마지못해 던진 게 ‘본위 기 쇠신’ 딱 한마디였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인파로 번이 일차 아차 싶었는지, 이번엔 ‘김’처럼 저런 말로 해고 작가들에게 ‘편향했다’는 낙인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히려 분노의 불씨를 더 키우게 될 걸, 진정 물렸던 걸까? 역시나 참, 쉽게 생각하셨다.(...)

‘김재철의 MBC’는 작가적 양심을 해고했다

그렇다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착각’까지 크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PD수첩 여섯 작가를 포함해 우리 방송작가들은 ‘밥’그릇을 돌려달라고 모인 것이 아니다. MBC가 해고한 것은 단지 ‘작가 여섯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날 우리는 ‘작가적 양심’을 해고당했다.

우리 시사교양작가들은 각자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시청률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이기 이전에, 시사교양프로그램이라는 고단한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이다. 돈과 명예는 멀고 스트레스와 피로 같은 몹쓸 것들과만 친한 길이지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두터운 ‘동료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 동료의식의 바탕은 작가로서 지켜야 하는 시사프로그램 본연의 가치와 작가적 양심이다. 우리의 방송 노동이, 우리의 팬이,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소박한 자부심이다. PD수첩 작가라는 이 모든 가치와 양심과 자부심을 쟁쟁히 자랑도 어떻게든 이한 몸 앉아야만 하는, ‘외자놀이’의 대상이 아니다.

양심? ‘그까이거’ 돈이나 자리, 위세와 바꿔먹는 것쯤 쉬운 분들에겐 전혀 ‘이해’ 안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에겐 ‘작가 질’ 하는데 ‘작가’라는 이름을 걸고 꼭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다. 밖에서 되도록 없는 낙인을 찍어대면 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것이다. 양심! 이것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체작가’가 시사교양작가 920여명 안에서는 결코 나를 리 만무한 이유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시라. 우린 안 간다. ‘있지도 않은’ 작가 찾다는 핑계로 PD수첩 방치 마시고, ‘이미 있는’ 훌륭한 작가들을 다시 불러들여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한 방송을 계속하시라. 그게 가장 ‘쉬운’ 해법임. 지칠 줄도 모르고 끈질기게 알려드린다.

김재철의 퇴진으로 명령휴직 폭거는 무효가 될 것이다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심증만으로 김재철이 회계부 소속 조합원 3명에게 내린 전대미문의 명령휴직 폭거에 대한 사내외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김재철의 행태는 사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인사권의 남용일 뿐더러 심증과 사적 보복 심리만으로 해고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가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근간까지 뒤흔든 만행이다. 조합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김재철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재철이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합에 유출한 당사자인 심증만으로 여섯 달 넘게 김재철 측의 색출조사에 시달려온 회계부 소속 조합원 3명에게 또 다시 1년간의 명령휴직을 내리는 야만적인 폭거를 단행했다. 명령휴직은 취업규칙 37조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대기기간 만료 때까지 대기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때에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명령휴직을 받은 직원에게는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6개월보다 훨씬 높은 중징계이다. 명령휴직은 과거 MBC의 일부 직원들이 연연히 버리 등에 협박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결과를 기다릴 때나 내렸던 극한적인 조치이다.

김재철은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들 조합원 3명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했을 것이라 심증만으로 이들에게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선 김재철은 오로지 심증만으로 이들 조합원들을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법인카드 유출 의혹을 찾겠다며 이들 조합원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무려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경찰 수사가 진전된 것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김재철은 또 다시 이들을 고소해 강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테러나 다름없는 전대미문의 인사권 남용

김재철은 나아가 이들에게 대기발령이라는 부당한 조치를 가했다. 오로지 파업에 가담했고 법인카드 유출을 한 당사자란 의혹뿐이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대기발령이 종료될 시점이 될 때까지 법인카드 유출자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들에게 1년 간 명령휴직이라는 악랄한 불공평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된 것도 아닌데도 인사권을 남용해 보복조치를 취했다. 조합은 이번 폭거를 자행한 김재철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적 소송을 할 경우 회사가 패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문지마 테러’ 식으로 ‘문지마 징계’를 자행한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동안 충분히 고통을 받으라는 새디스트 심리의 발상이다. 하지만 법적 소송에 앞서 김재철이 퇴진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조치가 원상회복될 것이라 사실을 조합은 분명히 해 둔다.

회사 인터넷 자유발언대에는 김재철로부터 명령휴직 폭거를 당한 임직원은, 정구원, 김은정 조합원의 동료 직원이 이번 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번 폭거의 부당성과 야만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세 사람의 동료이자 선배이고 후배들이 대기발령을 끝마치고, 결국 떠났던 소문대로 명령휴직을 받았습시다. 가슴이 꽉 막혀하고, 화가 차올랐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힘 따위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잘 모르는 사규지만 ‘명령휴직’에 관한 조항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우려와 달리 사규는 꽤나 명쾌하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그들이 명령휴직을 당할 근거는 없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더 막히고, 손발이 떨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어떤 맹목이 이들을 이렇게나 황당한 상황까지 이르게 하고 만 걸까...

제가 기억하는 명령휴직자 세 사람은 회계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문직을 갖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일해 왔습시다. 다른 직원들에게 털끝만큼의 피해 따위는 주지 않은 인격자들이기도 하였구요. 그런데 그들이 고소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고통을 겪는 것도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대가에 이어, 누구도 생각지 못한 명령휴직이라는 악몽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그게 양심선언이건, 내부 고발이건 간에 회사가 그들을 그리 다루는 것을 최소한 이해 정도는 할 것입니다. “아, 저들이 한 행위가 회사가 그리고 싫어하는 일을 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입니다. 사람 따라...

고문이나 다름없는 야만적 폭거

하지만 이번의 대기과 명령휴직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50년 이상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이자 회사로 이어온 MBC에서 ‘감’으로, ‘심증’으로, ‘미움’으로 인해 징계보다 더 가혹한 인사발령을 낸 것입니다. 대리 사이에 불을 끼워 넣고서 주리를 뜨는 것보다, 무릎 위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을 놓고, 손톱 밑을 송곳으로 찌러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쿡쿡에 물을 부어넣는 것만이 고문이 아닐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서 일을 빼앗고, 그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만 고문일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 시간은 갑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당신들이 한 무사비하고, 근거도 없는 무식한 행위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면 명령권자부터 실무자까지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꼭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던 그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들이 잘 하는 일을 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를 마음 속 깊이 바라며 두서없는 글을 마칩니다.